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사상 만세!

#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352호 【루계 제26226호】주제107(2018)년 12월 18일 (화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서거 7돐에 즈음하여

### 정부의 간부들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송고한 경의 표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서거 7돐에 즈음하여 정부의 간부들이 17일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송고한 경의를 표시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김영남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내각총리인 박봉주동지를 비롯한 정부의 간부들과 우당위원장, 정권기관, 내각, 근로단체, 성, 중앙기관 일꾼들이 참가하였다.

민족의 아버이시며 혁명의 대성인이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주체의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림상앞 최고성지 금수산태양궁전은 송원한 분위기에 휩싸여있었다.



송고한 경의를 표시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영생홀에서 정부의 간부들은 사랑하는 조국과 인민을 마음속에 소중히 안으시고 혁명생애의 마지막 순간까지 현지 지도의 길에 계시면서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한 성스러운 위업에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장군님의 영원 불멸할 업적을 가슴뜨겁게 되새겨보며 삼가 인사를 드렸습니다.

참가자들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유혼대로 경애하는 최고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명도를 일편단심 충성으로 받

고 내각의 공동명의로 된 꽃바구니를 봉고당의 새로운 전략적로선관철에서 혁명의 지휘성원으로서의 책임과 본분 정부 간부들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림상을 우러러

【조선중앙통신】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서거 7돐에 즈음하여 절세위인들의 동상과 태양상에

###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과 인민군장병들 꽃바구니 진정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이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의 대하가 12월의 조국강산에 뜨겁게 끓어 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서거 7돐에 즈음하여 각지에 높이 모신 절세위인들의 동상과 태양상에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과 인민군장병들이 꽃바구니와 꽃다발들을 진정하였다.

혁명명도의 전기간 세계적변혁과 창조로 사회주의조선의 승리의 역사를 펼쳐주시고 원만년 무궁할 미래를 담보해 주신 위대한 수령님들에 대한 열화같은 경모의 정을 안고 수많은 군중들이 만수대언덕에 몰렸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앞에는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보내신 꽃바구니가 놓여있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에 당, 정권, 무력기관, 사회단체, 성, 중앙기관, 정권시대 각급 기관, 기업소, 공장, 학교, 조선인민군, 조선인민내무군 부대 등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가 진정되였다.

반제민주주의전선 중앙지부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가 진정되였다. 군중들은 주체혁명의 새 기원을 열어나고 민족민대의 번영을 위한 역년기쁨을 마련해 주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성스러운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가슴뜨겁게 돌이켜보며 절세위인들의 동상을 우러러 삼가인사를 드렸습니다.

김일성종합대학, 만수대장자, 인민무력성, 인민보안성을 비롯한 수도의 여러곳에 모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과 태양상에 기관, 기업소, 조선인민군, 조선인민내무군 부대 등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가 진정되였다.

각지의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과 인민군장병들도 자기 고장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과 태양상을 찾아 다함없는 경모의 정을 표시하였다.

【조선중앙통신】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 나이지리아련방공화국 대통령이 꽃바구니를 보내어왔다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위대한 장군님의 서거 7돐에 즈음하여 나이지리아 령방공화국 대통령이 무함마드 두 부하리 무력총사령관이 꽃바구니를 보내어왔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의 공동명의로 된 꽃바구니가 진정되였다.

《김일성대원수 각하와 김정일대원수 각하의 영성을 삼가 기원합니다》라는 글말이 모셔져있었다.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 공화국영웅 안동수유가족 꽃바구니 진정, 외국의 단체들과 해외연교자가족들이 꽃바구니를 보내어왔다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위대한 장군님의 서거 7돐에 즈음하여 공화국영웅 안동수유가족인 정일성동지와 17일 꽃바구니를 진정하였다.

그는 조국의 흥성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한평생을 다 바치시였으며 송고한 격망으로 해외연교자가족들을 따뜻이 보살펴주시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에 꽃바구니를 진정하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꽃바구니의 명기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의 함께 계신다》라는 글말이 모셔져있었다.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위대한 장군님의 서거 7돐에 즈음하여 중국 길림족문중학교, 스위스조선위원회와 중국항일혁명렬사 장유화가족, 항일혁명유형연교자 김순옥가족, 국제주의전사 야. 페. 노비첸코가족이 꽃바구니들을 보내어왔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에 17일 꽃바구니들이 진정되였다.

꽃바구니들의 명기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의 함께 계신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생하시길이다》라는 글말이 모셔져있었다.

한편 이날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에 양광라의 인사가 보내어온 꽃바구니가 진정되였다.

본사기자

# 21세기의 위대한 태양이시며 총련과 재일동포들의 운명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 삼가 드립니다

주체혁명위업의 영원한 수명이시며 흥편과 제일동포들의 자애로운 어머니이신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 우리의 길을 떠나신 때로부터 7년전일이 흘렀습니다.

제일조선인총련합회 중앙상임위원회는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서거 7주년을 즈음하여 가장 숭고한 경의와 영생기원의 인사를 드리며 어머니정신에서 말리고가신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인민을 지니시고 주체혁명위업을 최후승리로 이끄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 전제 총련인민들과 제일동포들의 열렬한 충정의 마음을 담아 경의와 인사를 삼가 드립니다.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은 그 누구도 따를 수 없는 사상리론적재치와 천재적인 명도력, 억척같은 신념과 무비의 담력, 조국과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동지애의 뜨거운 정으로 우리 사회주의를 굳건히 지켜주시고 조국인민의 새시대를 펼쳐주시고 주체조선의 존엄과 위력을 인민을 수호하고 경의와 인사를 삼가 드립니다.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은 그 누구도 따를 수 없는 사상리론적재치와 천재적인 명도력, 억척같은 신념과 무비의 담력, 조국과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동지애의 뜨거운 정으로 우리 사회주의를 굳건히 지켜주시고 조국인민의 새시대를 펼쳐주시고 주체조선의 존엄과 위력을 인민을 수호하고 경의와 인사를 삼가 드립니다.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은 그 누구도 따를 수 없는 사상리론적재치와 천재적인 명도력, 억척같은 신념과 무비의 담력, 조국과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동지애의 뜨거운 정으로 우리 사회주의를 굳건히 지켜주시고 조국인민의 새시대를 펼쳐주시고 주체조선의 존엄과 위력을 인민을 수호하고 경의와 인사를 삼가 드립니다.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은 거룩한 이력 땅에서 애국애족운동을 하는 총련인민들과 제일동포들을 영웅의 뜨거운 정으로 보살피주시고 어머니의 운명을 굳건히 수호해주셨으며 총련을 자기수령, 자기조국과 생사운명을 같이하면서 일신전진의 위력을 높이 떨치시는 불멸의 대오로 키워주시고 세계혁명의교조로써의 본보기적으로 내세워주시고 인민을 인자하신 어머니이시며 위대한 명도자이십니다.

총련정당 40주년을 즈음하여 보내주시고 강령적으로 애국애족운동을 새로운 단계에 올려세우시고 때시기마다 총련이 나아갈 강령적 교수를 주시며 변화된 환경에 맞게 제일조선인민들을 결연적으로 강화발전시켜주시고 조국인민과 강령적 교수를 건설할 때 총련도 동포들의 행복과 후대들의 희망한 미래를 위하여 새로운 전성기를 위하여 크나큰 믿음과 온정을 베풀어주시고 어머니정신에서이셨습니다.

총련과 제일동포들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지 해주고싶다고 하시면서 조국이 고난의 행군을 하던 가장 준엄한 나날에도 제일동포자녀들을 위한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끊임없이 보내주시셨으며 조선대학교와 금강산극단에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서거 7주년을 가장 경건한 마음으로 추모하는 전체 총련인민들

제일조선인총련합회 중앙상임위원회  
주제107(2018)년 12월 17일 일별 드료

# 장군님은 영원히 인민과 함께

높이 내린다. 우리 장군님에 대한 그리움으로 가슴속에는 인민의 마음속에 12월의 흰눈이 내린다.

12월의 흰눈! 조용히 외워놓으려 민족대국상의 나날은 강산을 뒤덮으며 하얗게 얼어내려내려 흰눈이 지금도 눈앞에 삼삼히 인제다.

천만사람들의 앞길을 축복해주시며 햇빛같이 환하게 웃으시던 우리 장군님의 태양의 모습.

어머니정신에서 말리고가신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인민을 지니시고 주체혁명위업을 최후승리로 이끄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 전제 총련인민들과 제일동포들의 열렬한 충정의 마음을 담아 경의와 인사를 삼가 드립니다.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은 그 누구도 따를 수 없는 사상리론적재치와 천재적인 명도력, 억척같은 신념과 무비의 담력, 조국과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동지애의 뜨거운 정으로 우리 사회주의를 굳건히 지켜주시고 조국인민의 새시대를 펼쳐주시고 주체조선의 존엄과 위력을 인민을 수호하고 경의와 인사를 삼가 드립니다.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은 그 누구도 따를 수 없는 사상리론적재치와 천재적인 명도력, 억척같은 신념과 무비의 담력, 조국과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동지애의 뜨거운 정으로 우리 사회주의를 굳건히 지켜주시고 조국인민의 새시대를 펼쳐주시고 주체조선의 존엄과 위력을 인민을 수호하고 경의와 인사를 삼가 드립니다.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은 그 누구도 따를 수 없는 사상리론적재치와 천재적인 명도력, 억척같은 신념과 무비의 담력, 조국과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동지애의 뜨거운 정으로 우리 사회주의를 굳건히 지켜주시고 조국인민의 새시대를 펼쳐주시고 주체조선의 존엄과 위력을 인민을 수호하고 경의와 인사를 삼가 드립니다.

# 하나의 건설물을 보시면서

은 나라 강산에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사후처리는 그리움이 뜨겁게 불꽃처럼 12월이다.

펼쳐진 바다가 되고 쌓으면 하늘에 닿을 집세위인의 한생의 업적.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 끝없는 심혈과 노력을 바치신 위대한 장군님의 한생애는 만사람의 심금을 울리는 사연들이 얼마나 많이 새겨져있는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한생을 애국이 한마음으로 불태우시며 험난한 길을 헤쳐오신 애국 헌신의 정열은 우리 조국인민을 모험의 길로 이끌었고, 모험의 길은 모험의 정열을 낳았다.》

원신만제업소(당시)에 새겨진 이야기도 집세위인에 대한 한결

그리움을 불러오는 이야기들 중의 하나이다.

그날은 주제 94(2005)년 7월 어느날이었다.

삼복의 무더위를 헤치고 원신만제업소를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강원도인민들과 인민들의 애국의 마음과 땅이 습적인 소금밭을 오르도록 바라보시며 뜻대 민족해방이었다.

소울없이 끈임을 많이 했다고 높이 평가하시는 그의 용성에 대한 찬탄 어머니의 다심한 정이 가득 넘치었다.

이제 제업소의 실재를 구체적으로 료해 하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원신만제업소가 회한하다고, 강원도에서 소금밭을 돌리고 도지제의 힘으로 원신만제업소를 통해 크게 건설한것은 아주 잘하였다고 하시며 이렇게 표시하시었다.

이런것을 창조해놓는것이 바로 인민을 위한 일입니다. ...

하나의 건설물을 보시면서 인민을 먼저 생각하신 위대한 장군님.

그이께서는 최열에 넘치신 어쨌든 원신만제업소야말로 인민을 위한 대산업건설물이라고 하시었다.

인민을 위한 대산업건설물! 그의 뜻깊은 표시는 인민들의 가슴을 세차게 울려주었다.

호르는 시간과 더불어 무더위와 그의 뜻깊은 표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정제소금직장으로 길을 옮기시었다.

직장의 생산능력과 풍정에 대하여 료해하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강원도에서 원신만제업소를 건설해놓는것은 사람이 결심하고 말라붙으면 이 세상에 못낼 일이 없다는것을 잘 보여준다고 강조하시었다. 그러하시면서 문제는 땅의 수량과 의도를 거어 이 관철하고야말겠다는 사상이 중요했기이라고 하시며 강원

# 창조의 기준

인민의 기쁨과 행복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장군님의 사랑의 자국은 조국 땅 그 어디에나 감동같이 새겨져 있다.

우리 인민들이 즐겨찾는 창평원에도 위대한 장군님께서 기용하신 다심한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뜨겁게 깃들여 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애국애족의 사랑과 인민의 소중히 자라났고 있었습니 다.》

주제 68(1979)년 9월 어느날이었던 일이다.

이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정양시 중심구역에 새겨진 일 때는 창평원건설장을 찾으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건설장을 돌아보시며 인민들에게 복

유용한 어머니수령님께서 우리 인민들에게 베풀어주시는 때려 의의와 건설되는것만큼 모든것을 다 인민들이 쓰기 편하게 우리 식대로 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하나의 육조, 하나의 설비에도 그러한 요구가 철저

하지만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지니신 인민사랑의 숭고한 뜻을 인민들은 그에게서 다 배울 수 없었다. 큰마음을 먹고 설계한 대충량에서 그만하면 수능 능력이 크다고 생각하면 그들이

그런데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보다 더 큰 수능능력을 바라보게하시는것이 아닌가.

이 새겨졌다. 그것은 공민들의 지향과 요구, 인민의 리익이었다.

우리 인민들이 귀혹하는 총합적인 위생문화적인봉사기치인 창평원은 어떻게 모든것을 인민들의 편익과 힘에서 보고 대하는 위대한 장군님의 따뜻한 손길에 떠맡겨져 훌륭히 일어서게 되었다.

언제나 인민의 지향과 요구를 절대적기준으로 내세우시고 거창한 창조의 세계를 펼쳐서 인민의 행복을 끝없이 꽃피워주시고 우리 장군님은 정녕 한없이 자애로운 인민의 어머니이시었다.

본사기자 리정호

# 당과 정부의 간부들

조선 혁명 박물관 참관

당과 정부의 간부들은 총서판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의 색조각상을 우리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 서거 7주년을 즈음하여 당과 정부의 간부들, 일꾼, 학생, 청년들이 17일 조선혁명박물관을 참관하였다.

# 김영남 동지가 여러 나라 국가수반에게 축전을 보내었다

아스르나

가자흐스탄공화국 대통령 누르숄탄 나자르바예브각하

나는 가자흐스탄공화국 국경일에 즈음하여 당신과 당신을 통하여 귀국정부와 인민에게 따뜻한 인사를 보냅니다.

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가자흐스탄공화국사이의 친선협조관계가 두 나라 인민들의 리익에 부합되게 발전되리라 기대를 표명하면서 나라의 번영을 위한 당신의 책임적인 사업에서 커다란 성과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

주제107(2018)년 12월 16일

바레인 왕국 국왕 하마드 빈 이사 알 할리파페하

나는 바레인왕국 국경일에 즈음하여 당신과 귀국인민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

나는 이 기회에 당신에게 건강하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나라의 발전과 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둘것을 중심으로 축원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

주제107(2018)년 12월 16일

김영남 동지가 여러 나라 국가수반에게 축전을 보내었다

# 사회주의강국의 창창한 앞날을 축복하신다

## 다함없는 경모의 정 굽이치는 금수산태양궁전광장에서

날과 달이 흘러 또다시 찾아온 12월이다.  
7년새월이 흘렀다.  
가없이 펼쳐진 저 하늘을 바라보아도, 강산을 포근히 감싸안은 하얀 눈을 보아도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추억으로 가슴젖어드는 우리 인민이다.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날부터 조선혁명을 책임진 주인이 되겠다는 굳은 결심을 품으시고 한평생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 사회주의조국을 수호하고 빛내이시었으며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조국과 인민을 위한 애국헌신의 길을 이어가신 우리 장군님.

펼치면 바다가 되고 쌓으면 하늘을 향해 위대한 장군님의 그 업적은 못 있어 12월 17일은 나라인민의 마음과 발걸음이 금수산태양궁전광장으로 굽이쳤다.

우리의 발걸음도 금수산태양궁전광장으로 향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금수산태양궁전은 우리 수령님과 장군님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태양의 집이며 우리 인민과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그리움의 대화가 끊임없이 흐르는 주체의 최고성지입니다.》

러명거리에 들어서니 아침일찍부터 금수산태양궁전광장으로 향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수 있었다.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목표수행에 위한 중산층운동의 불길은 더욱 세차게 지펴올리며 날아나왔다. 적과 혁신을 창조해가고있는 비바람로동계, 경제강국건설의 주력적진군을 지경선 영예와 책임감을 가지고 열렬히마다에 불같은 충정을 새겨가는 농민군노자들.

이들뿐이 아니다. 진장로동계도 있었고 과학자들과 훌륭한 청년대학생, 학생소년들과 유치원어린이들도 있었다. 대헌수백 빛나는 들레문을 지니 금수산태양궁전광장에 들어서는 사람들의 열렬마다에는 승연한 빛이 어리어있었다.

사랑하는 후손들과 원민전사, 제자들을 반겨주듯 웃으며 새 세상이 환하도록 밝게 웃으시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태양상을 우리들 사람들은 삼가 경건한 마음으로 인사드리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태양상을 우리 르니 우리의 생각은 깊어졌다. 백두의 설한봉우에서 뿜어져나오는 아들로 탄생하시어 장구한 세월처럼 행복에 설레었고 먼곳에 있어 혁명의 전투에서 활약하시오신 우리 장군님.

위대한 장군님의 베풀어준 그 미소를 가슴에 안으면 누구나 불꽃처럼 행복에 설레었고 먼곳에 있어 그 미소를 눈앞에 그리며 그리워 품을 찾아 풀없이 마음달린 우리 인민이 아니었나.

우리의 귀전에 들려오는듯싶었다. 김정은동지는 저 하늘의 태양이라고, 태양이 빛나는 조선의 앞날을 밝고 창창하다고 하시던 어머니수령님의 우렁우렁하진 음성아.

조국과 인민을 위한 길에 언제나 함께 계시었듯이 오늘도 함께 계시며 태양의 미소를 보내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자애로운 영상을 우리들 머리 지리머를 뿜을 모르는 사람들의

얼굴마다에서 우리는 그들의 마음을 읽어보았다. 우리와 만난 국토환경보호성의 일꾼인 장철영동무는 흥분된 목소리로 말하였다.

《환하게 웃으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모습을 우미르느라니 한평생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신 헌신의 로고와 어려움과 정갈 가슴뜨거워움을 금할수 없습니디.》

《되새겨지는 하나의 굽이치는 우리의 가슴을 울려주었다. 오직 인민을 위하여! 그처럼 열렬하고도 순결한 지향을 안으시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한평생 인민행복의 기적소리를 높이 울려주시었다.》

이제는 편지를 타고다니며 거기에 생활하는것이 습관이 되어 그런 지렁이에 오르면 집에 온것 같이 느껴지고 반대로 집에 들어서면 러면

에 온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하시면서 아전철차를 마시고 초창도의 헌지지도강행군길을 취입없이 이어가신것이 우리 장군님이시었다. 그래서 이 나라의 한 시인은 이렇게 드로하지 않았나.

그처럼 힘은 아전철차강행군 아전철차강행군이 깰만 아전철차 정물였다. 아전철차 아전철차 그 집 아닌 집에서 정물도 유익이다. 자신의 생신날도 다 보내셨거니

한평생 오로지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광그리 바치시면서도, 인민들과 어린이들에게 세상에 제일 훌륭한 공전, 보급자리를 마련해

주시면서도 자신을 위해서는 그 무엇도 남기지 않으신 우리 장군님이시었다.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온 한해 헌지지도의 길에 계시며 세월의 비바람, 눈바람을 다 맞으신 위대한 장군님.

천안아름답습니다. 그이와 맺은 정과 의리는 이 땅 어디에서나 살아백막 지고있다. 북방의 대후담에는 제대군인안들의 귀속마을을 돌으시며 태어날 아기의 이름을 지어주시고 그의 사려 깊은 정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북방의 태극산에는 막장까지 찾아 가서 어부들의 생활을 보살펴 주시던 뜨거운 손길이 어리어있다.

높고 힘찬 산맥을 넘어 찾으신 최현과 봉림의 언덕에도, 눈송이 같은 비바람을 손에 드시고 그처럼 기뻐하시던 비바람생산기 지에도 아니 이 땅 그 어디에나

어버이장군님의 한없는 인민사랑이 깃들여있다. 시간이 흐름수록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산태양궁전광장은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고있었다. 오랫동안 남세도 개이면서 하늘에서 파시로운 햇빛이 쏟아져내렸다.

《오늘 우리는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을 안고 금수산태양궁전광장을 또다시 찾았습니디. 인민생활향상을 위해 그토록 마음 쓰시던 장군님을 생각하며 우리는 각기의 사업과 생활을 몰이겨모인 합니다. 그리고 위대한 장군님께 또다시 바친 충정을 생각하는 원수님들 다 바쳐갈 명세를 이곳에서 다시금 다지게 됩니디.》

이것은 저 하나만의 생각이 아닌

이다. 우리 사업소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의 한결같은 심정입니다.》 세월은 흘러도 우리 인민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그리움이 짙 차있다는 생각이 가슴은 후회되지않았다. 그 누가 말했는가. 그리움은 추억이 되고, 그리나 우리는 말하고싶디. 그리움은 힘이 되고, 어버이장군님에 대한 그리움에 받들려 대가넘비적삼조물들이 솟아올랐고 새차게 마련되는 총성의 불길과 더불어 이 땅에 세기적번영의 역사가 펼쳐지지 않았나.

세거불수록 우리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해 바치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헌신과 로고가 안겨오고 만아인은 사랑에 보답할 총성의 길의가 대하마냥 굽이치는 금수산태양궁전광장이었다.

절절한 그리움으로 가슴 불태우는 사람들의 열렬마다에는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태양의 심지를 꾸려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다함없는 감시의 정이 비껴쳐 드고있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자신의 심장속에 함께 계신다고, 장군님을 심장속에 모시고있기에 언제나 마음이 든든하다고 하시며 당건선과 당활동, 혁명과 건설의 모든 사업을 철두철미 장군님의 뜻대로, 장군님께서 가르쳐주시는데로 해나가도록 이끄시는 경애하는 원수님.

그이의 현명한 행동에 의하여 오늘 우리 조국에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성스러운 혁명력사가 얼마나 즐겁게 흐르고있는가.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그리움이 더욱 승화될수록 경애하는 원수님의 행동을 총성으로 만들어나가는 사람들의 열의로 광장은 굽이치는 대아 오르고있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태양상을 우리들 머리 지리머를 뿜을 모르는 사람들의 열렬마다에는 승연한 빛이 어리어있었다. 사랑의 강국의 창창한 앞날을 축복해주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태양의 미소가 한탄의 빛을 뿌리고 경애하는 원수님 따라 불멸의 불길의 승고한 뜻을 더욱 활짝 꽃피워갈 총성의 대가 이렇듯 뜨겁게 굽이치는 우리 조국의 힘찬 전진을 가로막을 힘은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다.

글 쓴사기자 김철혁  
사진 쓴사기자 김흥명

## 주체조선의 영원한 태양으로 높이 모시리

위대한 영도자 김정은동지의 서거 7주에 즈음하여 전제 인민들과 인민군장병들은 사회주의조선의 영원한 영상이시며 혁명의 대승인인인 어버이장군님을 가장 경건한 마음으로 추모하였다.

《우리는 위대한 장군님을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모시고 영결의 혁명성애와 불멸의 혁명업적을 길이 빛내어나가야 합니다.》

민족최대의 추모의 날에 즈음하여 위대한 영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영상의 모습으로 계시는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군노자들과 인민군장병들이 승고한 경의를 표시하였다. 금수산태양궁전광장으로 사람들의 물결이 풀없이 흘렀다. 위대한 장군님과 맺은 정을 피워치던 천하고 장군님의 사상과 뜻으로 심장을 불태우며 수령의 유존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의 자랑스런 승리를 이룩해온 군노자들과 청소년학생들, 인민군장병들은 위대한 수령 김정은동지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은동지의 태양상을 우미르삼가 인사를 드려왔다.

그들은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한평생 바치신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애민의 헌신과 로고속에 강국의 토대가 마련되고 오늘 우리 공화국은 위대한 태양의 존함으로 누리며 영광되치고있음을 가슴깊이 절감하였다. 가지에 없이 모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과 태양상을

찾은 군노자들과 인민군장병들, 청소년학생들이 경모의 정을 표시하였다. 그들은 혁명의 불꽃을 높이 드시고 사회주의위업을 백승의 한길로 이끄시어 주체조선의 존엄과 위엄을 높이 펼쳐주시신 일세위인의 불멸의 업적을 찬탄한 길이 빛내어갈 총성의 길의를 다짐하였다.

수도 평양의 모란봉구장에서 국립교향악단의 최고음악가가 진행되었다. 교향곡 《장군님은 태양으로 영결하신다》중에서 제1악장 《흰 눈이 내리고》, 제2악장 《장군님 죽지마시디》, 제3악장 《인민사랑의 노래》, 첼로협주곡 《장군님생각》 등의 품목들에서 출연자들은 초창도강행군길을 끊임없이 이어가시면서 희생적인 헌신으로 부강조국건설사에 빛나는 자욱을 새기고 주체조선의 창창한 미래를 열어 놓으신 일세위인에 대한 다함없

는 경모심을 장중된 울림과 정서적인 선율에 담아 강동깊게 형성하였다. 장엄하고, 황해복도, 함경북도, 강원도, 량강도 등지에서 예술인들의 최고음악회가 열렸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은동지에 대한 한없는 경모의 정이 굽이치는 무대물에는 일화와 함상 《김정은동지께 드리는 노래》, 남심5중창 《헌신길에 높이 내리네》, 혼성2중창 《예후과 후모》, 성화와 녀성중창 《대비의 흰눈송이》를 비롯한 품목들이 울렸다.

눈덮인 북방의 흰산봉우를 넘고넘오시며 강계정신의 거세한 불길을 지퍼주시고 자강도들 자신의 정든 고장이라고 불러주시는 어버이장군님의 인민사랑의 세계를 구기한 자강도에술단 예술인들의 설화와 함상 《그리워》는 장대를 격정적 젖어올게 하였다. 평안남도, 함경남도에도술단 에

## 교육발전을 위해 새기신 령도의 자욱

조국이 시련을 겪던 고난의 시기 위대한 장군님께서께서는 향으로 귀중한 명언을 남겨주시었다. 후대물들을 키우는 사업을 한길로 놓추면 조국의 전진이 열길을 떠진다. 위대한 장군님의 명언에는 교육을 중시하고 앞세워나가는 여기에 조국과 민족의 흥성번영이 기약되어있다. 다 주체사상에 기초한 심원한 교육철학과 평온한

【조선중앙통신】 달출출길, 당중앙의 구성과 정심이면 산도 때죽기고 바다도 때죽고 벌판은 일일만 안고 펼쳐나선 건설자들과 과학자, 기술자들은 무대치는 애로와 난관을 대적해 풀어나가며 선진국의 날바다를 횡단하는 해상유리대를 건설함으로써 우리 나라 철길건설력사에 일찌기 없었던 새로운 정지를 개척하고 주체조선의 막강한 힘을 뚜렷이 표시하였다.

## 깊이 새겨주신 혁명철학

조국이 시련을 겪던 고난의 시기 위대한 장군님께서께서는 향으로 귀중한 명언을 남겨주시었다. 후대물들을 키우는 사업을 한길로 놓추면 조국의 전진이 열길을 떠진다. 위대한 장군님의 명언에는 교육을 중시하고 앞세워나가는 여기에 조국과 민족의 흥성번영이 기약되어있다. 다 주체사상에 기초한 심원한 교육철학과 평온한

【조선중앙통신】 달출출길, 당중앙의 구성과 정심이면 산도 때죽기고 바다도 때죽고 벌판은 일일만 안고 펼쳐나선 건설자들과 과학자, 기술자들은 무대치는 애로와 난관을 대적해 풀어나가며 선진국의 날바다를 횡단하는 해상유리대를 건설함으로써 우리 나라 철길건설력사에 일찌기 없었던 새로운 정지를 개척하고 주체조선의 막강한 힘을 뚜렷이 표시하였다.

## 작은 문제가 아니다

로고를 바쳐 가고계시는 위대한 장군님께 작정을 거쳐 드린것 같이 일꾼들은 선뜻 보고드리지 못하셨습니다. 이러한 심정을 헤아려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께서는 그러한 문제들을 용해 자신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보고하시었다. 끊임없이 건설길을 이어가시고 더욱이 경제적난극을 풀고나가시디 크나큰

【조선중앙통신】 달출출길, 당중앙의 구성과 정심이면 산도 때죽기고 바다도 때죽고 벌판은 일일만 안고 펼쳐나선 건설자들과 과학자, 기술자들은 무대치는 애로와 난관을 대적해 풀어나가며 선진국의 날바다를 횡단하는 해상유리대를 건설함으로써 우리 나라 철길건설력사에 일찌기 없었던 새로운 정지를 개척하고 주체조선의 막강한 힘을 뚜렷이 표시하였다.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과 경모의 정이 12월의 강산에 차일진다.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 생애의 마지막까지 초진간적인 의지로 불면불몰의 헌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신 어버이장군님.

날이 가고 해가 바뀔수록 어버이장군님께서 쌓으신 위대한 업적을 가슴깊이 새기며 혁명적 유존관철을 위한 투쟁에 순결한 믿음을 바쳐가는 우리 인민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우리는 장군님의 유혹을 길잡이처럼 붙여주고 한치의 드림도 없이, 한결같은 양보도 없이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여 장군님의 구상과 념원을 빛나게 실현해나가야 합니다.》

파연 로를 세워야 하는가. 인민일초를 다룬던 그때 용해 공들의 심장을 평방 두드렸던 위대한 장군님께서 10년전 12월 자기들의 일터를 찾아 오시어 장성의 로동계급이 소피치며 힘차게 내달리자 전국의 로동계급의 발걸음이 더 빨라지게 된다고 하신 간곡한 교시

대상의 전속물과 광대한 면적의 온실건설, 1000여대의 일비 조립을 비롯한 공사를 짧은 기간에 수행할수 있게 하였나. 몇해전 강원도양양을 도돌에 건설하는 양묘장들의 본보기, 로동으로 우뚝이 대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파업을 받아 안았을 때 강원도당위원회 일꾼들의 가슴은 격정으로 새차게 노획였다. 이것은 위대한 장군님의 간곡한 유혹을 관철하기 위한 신념의 불기둥의 일정에 강원도가 실것을 바라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크나큰 믿을

이그 사랑이었다. 즉시 책임일꾼들의 헌지담사와 협의회가 진행되고 방대한 공사를 짧은 기간에 해치이기 위한 총이 큰 작전이 펼쳐졌다. 설계작성과 관련한 협의회만도 수십개, 당의 의도에 맞는 리를 건설함으로써 우리 나라 철길건설력사에 일찌기 없었던 새로운 정지를 개척하고 주체조선의 막강한 힘을 뚜렷이 표시하였다.

이것은 위대한 장군님의 간곡한 유혹을 관철하기 위한 신념의 불기둥의 일정에 강원도가 실것을 바라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크나큰 믿을

이그 사랑이었다. 즉시 책임일꾼들의 헌지담사와 협의회가 진행되고 방대한 공사를 짧은 기간에 해치이기 위한 총이 큰 작전이 펼쳐졌다. 설계작성과 관련한 협의회만도 수십개, 당의 의도에 맞는 리를 건설함으로써 우리 나라 철길건설력사에 일찌기 없었던 새로운 정지를 개척하고 주체조선의 막강한 힘을 뚜렷이 표시하였다.

이것은 위대한 장군님의 간곡한 유혹을 관철하기 위한 신념의 불기둥의 일정에 강원도가 실것을 바라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크나큰 믿을

## 백두산기슭의 학교에서

주제 91 (2002)년 10월 8일 위대한 장군님께서께서는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추대되신 5백이 넘는 뜻깊은 그날 백두산기슭 부흥마을 로동자녀들을 위해 생겨진 삼지연군 부흥중학교(당시)를 찾으신것을 잊지 않으시었다. 《어버이장군님, 아이들을 위해 찾오셨으니 만경대학생소년궁전이며 해빛마을 학교들과 아영소들이었다. 그 사랑의 자욱을 우리의 나어린 학생들은 가슴에 깊이 새겨나고 있다. 정녕 학교강당을 뜨거운 눈물로 적셔준 최고음악회는 그대로

못 잊을 그날과 더불어 10월 8일모듬교수자라는 뜻깊은 부분이 이 땅우에 태어나게 되었다. 결과 교육자들로서 후대교육사업에 매진하는 믿음을 바쳐가는 아름다운 기쁨이 더욱 차일치고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학생들에게 승고한 정신과 높은 창조력을 키워줄수 있도록 교수내용과 방법을 혁신하기 위한 사업에서는 눈부신 성과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쓴사기자 김명철

12월의 맹세

천만의 심장속에 더욱 불타는

세우고 설계를 수정하기를 그

이것은 위대한 장군님의 간곡한 유혹을 관철하기 위한 신념의 불기둥의 일정에 강원도가 실것을 바라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크나큰 믿을

## 절절한 마음안고 러지는 노래

나어린 심장들이 러지는 그리움과 흥도의 불꽃이었다. 교강 김선철동무는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 학교에서는 해마다 12월이면 회고음악회를 열고 새 세대의 가슴마다 어버이장군님의 유존을 받들어 경애하는 원수님만을 따르는 해바라기꽃, 알날의 기둥간으로 자랑할 불같은 맹세를 굳게 심어주고있습니다. 《새 세대가 러지는 흥도의 노래와 함께 이 땅에서는 태양만을 따르는 총성의 대오가 무수히 자라나고있다. 쓴사기자 김명철

이것은 위대한 장군님의 간곡한 유혹을 관철하기 위한 신념의 불기둥의 일정에 강원도가 실것을 바라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크나큰 믿을



전사회적으로 통구열풍을 세차게 일으켜나가자

### 통구열풍을 세차게 일으켜나가자

통구를 발전시키고 전사회적으로 통구열풍을 세차게 일으켜나가자는 것이 우리 당이 매우 중시하는 문제이다. 통구는 세지성과 민첩성, 속도와 인내력을 요구하는 체육종목이다. 통구는 달리기와 조약육을 많이 하고 여러가지 복잡한 상황을 빨리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키를 크게 하고 지적능력을 발달시키는 데 아주 좋다. 배구는 그들을 쳐죽이고 자기 구역에서 그들우로 공을 옮기는 것만으로도 사익을 사익이 아닌 속도로 뛰어나기 때문에 육체적 부담이 대단히 크다. 때문에 통구를 많이 하면 체력을 증진시켜 단련할 수 있으며 몸도 유연하게 할 수 있다.

통구는 세계적으로도 인기 가 높은 체육종목중의 하나이다. 통구대만 세우면 어디서나 통구를 할 수 있다.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사회적으로 통구를 많이 하는 기풍을 세우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통구를 발전시키는 것은 단순히 체육발달의 문제나 아니라 당의 명도업적을 옹호하고 수호하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다.

일제에 대한 장군님께서는 나라의 통구를 발전시키고는 나라에 통구열풍을 일으키기 위한 사업을 강력적으로 이끌어주시었다.

주제86(1997)년 1월 4일

### 통구열풍을 세차게 일으켜나가자

통구를 발전시키고 전사회적으로 통구열풍을 세차게 일으켜나가자는 것이 우리 당이 매우 중시하는 문제이다. 통구는 세지성과 민첩성, 속도와 인내력을 요구하는 체육종목이다. 통구는 달리기와 조약육을 많이 하고 여러가지 복잡한 상황을 빨리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키를 크게 하고 지적능력을 발달시키는 데 아주 좋다. 배구는 그들을 쳐죽이고 자기 구역에서 그들우로 공을 옮기는 것만으로도 사익을 사익이 아닌 속도로 뛰어나기 때문에 육체적 부담이 대단히 크다. 때문에 통구를 많이 하면 체력을 증진시켜 단련할 수 있으며 몸도 유연하게 할 수 있다.

통구는 세계적으로도 인기 가 높은 체육종목중의 하나이다. 통구대만 세우면 어디서나 통구를 할 수 있다.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사회적으로 통구를 많이 하는 기풍을 세우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통구를 발전시키는 것은 단순히 체육발달의 문제나 아니라 당의 명도업적을 옹호하고 수호하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다.

일제에 대한 장군님께서는 나라의 통구를 발전시키고는 나라에 통구열풍을 일으키기 위한 사업을 강력적으로 이끌어주시었다.

주제86(1997)년 1월 4일

### 통구열풍을 세차게 일으켜나가자

통구를 발전시키고 전사회적으로 통구열풍을 세차게 일으켜나가자는 것이 우리 당이 매우 중시하는 문제이다. 통구는 세지성과 민첩성, 속도와 인내력을 요구하는 체육종목이다. 통구는 달리기와 조약육을 많이 하고 여러가지 복잡한 상황을 빨리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키를 크게 하고 지적능력을 발달시키는 데 아주 좋다. 배구는 그들을 쳐죽이고 자기 구역에서 그들우로 공을 옮기는 것만으로도 사익을 사익이 아닌 속도로 뛰어나기 때문에 육체적 부담이 대단히 크다. 때문에 통구를 많이 하면 체력을 증진시켜 단련할 수 있으며 몸도 유연하게 할 수 있다.

통구는 세계적으로도 인기 가 높은 체육종목중의 하나이다. 통구대만 세우면 어디서나 통구를 할 수 있다.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사회적으로 통구를 많이 하는 기풍을 세우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통구를 발전시키는 것은 단순히 체육발달의 문제나 아니라 당의 명도업적을 옹호하고 수호하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다.

일제에 대한 장군님께서는 나라의 통구를 발전시키고는 나라에 통구열풍을 일으키기 위한 사업을 강력적으로 이끌어주시었다.

주제86(1997)년 1월 4일

### 통구열풍을 세차게 일으켜나가자

통구를 발전시키고 전사회적으로 통구열풍을 세차게 일으켜나가자는 것이 우리 당이 매우 중시하는 문제이다. 통구는 세지성과 민첩성, 속도와 인내력을 요구하는 체육종목이다. 통구는 달리기와 조약육을 많이 하고 여러가지 복잡한 상황을 빨리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키를 크게 하고 지적능력을 발달시키는 데 아주 좋다. 배구는 그들을 쳐죽이고 자기 구역에서 그들우로 공을 옮기는 것만으로도 사익을 사익이 아닌 속도로 뛰어나기 때문에 육체적 부담이 대단히 크다. 때문에 통구를 많이 하면 체력을 증진시켜 단련할 수 있으며 몸도 유연하게 할 수 있다.

통구는 세계적으로도 인기 가 높은 체육종목중의 하나이다. 통구대만 세우면 어디서나 통구를 할 수 있다.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사회적으로 통구를 많이 하는 기풍을 세우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통구를 발전시키는 것은 단순히 체육발달의 문제나 아니라 당의 명도업적을 옹호하고 수호하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다.

일제에 대한 장군님께서는 나라의 통구를 발전시키고는 나라에 통구열풍을 일으키기 위한 사업을 강력적으로 이끌어주시었다.

주제86(1997)년 1월 4일

###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체육선수후보육성사업을 전향성있게 해나가야 합니다.》

올해 모란봉구역 전우초급중학교의 녀자통구선수들은 제44차 정일봉상 전국청소년학생체육경대회 녀자통구경기에서 우승함으로써 대회 6연승을 기록하였다.

얼마전 우리는 그 주인공들을 만나 보고싶어 학교를 찾았다.

우리와 만난 교장은 학교가 정일봉상 전국청소년학생체육경대회 녀자통구경기에서 6연승을 정회하게 된 데는 체육교원 정선화동무의 날다른 노력이 덕이었고 한다고 하면서 그 대하여 이야기 해주셨다.

알고보니 정선화동무는 이 학교 졸업생이었다.

학교시절 통구소조원이었던 그는 지금으로부터 10여 년전에 김일주사범대학을 졸업하고 이 학교 체육교원으로 배치되었다.

교원생활을 갖 시작할 때 그의 가슴속에는 통구를 잘

###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체육선수후보육성사업을 전향성있게 해나가야 합니다.》

올해 모란봉구역 전우초급중학교의 녀자통구선수들은 제44차 정일봉상 전국청소년학생체육경대회 녀자통구경기에서 우승함으로써 대회 6연승을 기록하였다.

얼마전 우리는 그 주인공들을 만나 보고싶어 학교를 찾았다.

우리와 만난 교장은 학교가 정일봉상 전국청소년학생체육경대회 녀자통구경기에서 6연승을 정회하게 된 데는 체육교원 정선화동무의 날다른 노력이 덕이었고 한다고 하면서 그 대하여 이야기 해주셨다.

알고보니 정선화동무는 이 학교 졸업생이었다.

학교시절 통구소조원이었던 그는 지금으로부터 10여 년전에 김일주사범대학을 졸업하고 이 학교 체육교원으로 배치되었다.

교원생활을 갖 시작할 때 그의 가슴속에는 통구를 잘

###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체육선수후보육성사업을 전향성있게 해나가야 합니다.》

올해 모란봉구역 전우초급중학교의 녀자통구선수들은 제44차 정일봉상 전국청소년학생체육경대회 녀자통구경기에서 우승함으로써 대회 6연승을 기록하였다.

얼마전 우리는 그 주인공들을 만나 보고싶어 학교를 찾았다.

우리와 만난 교장은 학교가 정일봉상 전국청소년학생체육경대회 녀자통구경기에서 6연승을 정회하게 된 데는 체육교원 정선화동무의 날다른 노력이 덕이었고 한다고 하면서 그 대하여 이야기 해주셨다.

알고보니 정선화동무는 이 학교 졸업생이었다.

학교시절 통구소조원이었던 그는 지금으로부터 10여 년전에 김일주사범대학을 졸업하고 이 학교 체육교원으로 배치되었다.

교원생활을 갖 시작할 때 그의 가슴속에는 통구를 잘

###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체육선수후보육성사업을 전향성있게 해나가야 합니다.》

올해 모란봉구역 전우초급중학교의 녀자통구선수들은 제44차 정일봉상 전국청소년학생체육경대회 녀자통구경기에서 우승함으로써 대회 6연승을 기록하였다.

얼마전 우리는 그 주인공들을 만나 보고싶어 학교를 찾았다.

우리와 만난 교장은 학교가 정일봉상 전국청소년학생체육경대회 녀자통구경기에서 6연승을 정회하게 된 데는 체육교원 정선화동무의 날다른 노력이 덕이었고 한다고 하면서 그 대하여 이야기 해주셨다.

알고보니 정선화동무는 이 학교 졸업생이었다.

학교시절 통구소조원이었던 그는 지금으로부터 10여 년전에 김일주사범대학을 졸업하고 이 학교 체육교원으로 배치되었다.

교원생활을 갖 시작할 때 그의 가슴속에는 통구를 잘

###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체육선수후보육성사업을 전향성있게 해나가야 합니다.》

올해 모란봉구역 전우초급중학교의 녀자통구선수들은 제44차 정일봉상 전국청소년학생체육경대회 녀자통구경기에서 우승함으로써 대회 6연승을 기록하였다.

얼마전 우리는 그 주인공들을 만나 보고싶어 학교를 찾았다.

우리와 만난 교장은 학교가 정일봉상 전국청소년학생체육경대회 녀자통구경기에서 6연승을 정회하게 된 데는 체육교원 정선화동무의 날다른 노력이 덕이었고 한다고 하면서 그 대하여 이야기 해주셨다.

알고보니 정선화동무는 이 학교 졸업생이었다.

학교시절 통구소조원이었던 그는 지금으로부터 10여 년전에 김일주사범대학을 졸업하고 이 학교 체육교원으로 배치되었다.

교원생활을 갖 시작할 때 그의 가슴속에는 통구를 잘

###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체육선수후보육성사업을 전향성있게 해나가야 합니다.》

올해 모란봉구역 전우초급중학교의 녀자통구선수들은 제44차 정일봉상 전국청소년학생체육경대회 녀자통구경기에서 우승함으로써 대회 6연승을 기록하였다.

얼마전 우리는 그 주인공들을 만나 보고싶어 학교를 찾았다.

우리와 만난 교장은 학교가 정일봉상 전국청소년학생체육경대회 녀자통구경기에서 6연승을 정회하게 된 데는 체육교원 정선화동무의 날다른 노력이 덕이었고 한다고 하면서 그 대하여 이야기 해주셨다.

알고보니 정선화동무는 이 학교 졸업생이었다.

학교시절 통구소조원이었던 그는 지금으로부터 10여 년전에 김일주사범대학을 졸업하고 이 학교 체육교원으로 배치되었다.

교원생활을 갖 시작할 때 그의 가슴속에는 통구를 잘

###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체육선수후보육성사업을 전향성있게 해나가야 합니다.》

올해 모란봉구역 전우초급중학교의 녀자통구선수들은 제44차 정일봉상 전국청소년학생체육경대회 녀자통구경기에서 우승함으로써 대회 6연승을 기록하였다.

얼마전 우리는 그 주인공들을 만나 보고싶어 학교를 찾았다.

우리와 만난 교장은 학교가 정일봉상 전국청소년학생체육경대회 녀자통구경기에서 6연승을 정회하게 된 데는 체육교원 정선화동무의 날다른 노력이 덕이었고 한다고 하면서 그 대하여 이야기 해주셨다.

알고보니 정선화동무는 이 학교 졸업생이었다.

학교시절 통구소조원이었던 그는 지금으로부터 10여 년전에 김일주사범대학을 졸업하고 이 학교 체육교원으로 배치되었다.

교원생활을 갖 시작할 때 그의 가슴속에는 통구를 잘

###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체육선수후보육성사업을 전향성있게 해나가야 합니다.》

올해 모란봉구역 전우초급중학교의 녀자통구선수들은 제44차 정일봉상 전국청소년학생체육경대회 녀자통구경기에서 우승함으로써 대회 6연승을 기록하였다.

얼마전 우리는 그 주인공들을 만나 보고싶어 학교를 찾았다.

우리와 만난 교장은 학교가 정일봉상 전국청소년학생체육경대회 녀자통구경기에서 6연승을 정회하게 된 데는 체육교원 정선화동무의 날다른 노력이 덕이었고 한다고 하면서 그 대하여 이야기 해주셨다.

알고보니 정선화동무는 이 학교 졸업생이었다.

학교시절 통구소조원이었던 그는 지금으로부터 10여 년전에 김일주사범대학을 졸업하고 이 학교 체육교원으로 배치되었다.

교원생활을 갖 시작할 때 그의 가슴속에는 통구를 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 신 의 주철도분국에서

신 의 주철도분국에서 통구열풍을 세차게 일으키기 위한 사업을 방... (text continues)



모란봉구역 전우초급중학교의 녀자통구선수들이 연습하는 모습이다.

### 3인 통구

3인통구경기는 각각 3명으로 구성된 두 팀이 통구경기장 구심구역에서 진행되는 체육종목이다. 3인통구는 20세기 60년대 어느 한 나라의 거리에서 진행된 통구유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이로부터 일명 길거리통구라고도 불렸다. 사람이 많지 않아도 되고 좁은 장소에서 통구가 하나만 있어도 얼마든지 경기를 할 수 있어 3인통구에 대한 사람들의 인기는 계속 높아지고 있다. 경기와 오락이 결합된 3인통구를 많이 하게 되면 몸을 단련하고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좋다.

### 통구경기에서의 각종 위반들

나간것으로 인정한다. 통구경기에서 각종 위반들... (text continues)

### 실화본

《오범이, 무고하게서도...》 (text continues)

### 실화본

《오범이, 무고하게서도...》 (text continues)

### 실화본

《오범이, 무고하게서도...》 (text continues)

# 조국청사에 길이 빛날 절세위인의 한평생

위대한 장군님께서 대한 사무지는 그리움이 온 나라 강산에 지녔고있는 지금 우리 인민은 부강번영하는 통일강국을 일떠세우기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신 절세위인의 거룩한 한평생이 뜨겁게 어려와 솟구치는 격정을 금치 못하고있다.

자신을 위해서는 순간의 휴식마저 허용하지 않으시고 조국과 민족의 번영을 위해 천안고생도 띠고 여기신 아버지장군님, 그의 불같은 한생을 떠나 온갖은 우리 공화국의 오늘에 대해 결코 생각할 수 없다.

끝없는 그리움속에 흘러간 나날들이 얼마나 위대한분을 어버이로 모시고 살아왔는가를, 그의 한평생이 얼마나 크나큰 업적으로 빛나고있는가를 사무치게 절감한 우리 인민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김정일동지는 그 누구보다도 조국과 인민을 열렬히 사랑하시였으며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길에 한평생 광구리 땀까지 흘려 조국청사에 영원히 빛날 불멸의 업적을 이룩하신 절세의 애국자이십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더디나 사랑하는 조국과 인민이 소중히 자리잡고있었다.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날부터 조선혁명을 책임진 주인이 되겠다는 굳은 결심을 품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한평생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 사회주의조국을 수호하고 빛내이시였으며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조국과 인민을 위한 애국헌신의 길을 이어가시였다.

애국을 가장 숭고한 높이에서 체현하신 우리 장군님이시기에 날들갈수록 열매도 더 주지않아버렸을 엄혹한 시련을 파과히 뚫고내시며 우리 인민이

대대손손 긍지높이 살아나갈수 있는 억척기개를 마련해주시고 태양민족의 존엄을 온 세상에 떨치시였다.

백두의 혁명정신이 맥박치고 뒤흔친 사회주의신념이 고동지며 열렬한 애국, 애족, 애민의 열과 정이 차넘치는 우리 장군님의 한평생에는 실로 절세의 애국자의 위대한 한평생이었다.

조국과 인민에 대한 우리 장군님의 불보다 뜨거운 사랑, 희생적인 헌신은 자기 인민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사회주의제도의 정당성, 주체혁명위업의 승리에 대한 확고부동한 믿음에서 출발한것이였다.

그 믿음을 안으시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엄혹한 난국을 라게하고 조국을 수호하기 위하여 사생결단의 험난한 길도 주저없이 걸으시였다.

그 길에 얼마나 간고한 애국헌신의 길이었는가를 하는것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고난의 행군시기부터 생의 마지막시기까지 일고계시던 탄압속에서 눈물겹게 말해주고있다.

누가 최후에 웃는가를 보라고 하시며 승리할 때에 대한 확신을 안으시고 우리 장군님께서 해적가신 그 길에서 우리 조국은 세계적 민족으로 위용을 띠게 되였다. 그의 강인담대한 기상일여 적대세력의 반공화국살상정책과 반동입도전은 절름다리 산산이 짓부셔졌으며 우리 민족의 존엄과 긍지는 최상의 경지에 올려서게 되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정력적인 명도에 의하여 그토록 어려운 속에서서도 이르는 못마더에 조국의 부강번영과 후손대대의 행복을 위한 기밀비적장조물들이 훌륭히 임했다. 이 땅에서 이룩된 세기적업적은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애국주의가 안아온 고귀한 결실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민족분열의

아픔을 두고 잠 못 이루시든 어버이수령님의 심리를 덜어드리고 겨레의 숙원을 풀어주시기 위해 끝없는 로고를 바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조국통일유산을 관철하기 전에는 그 어떤 띠도 바치지 않는다는것이 우리 장군님의 신조였다.

나라의 크고작은 일들을 다 돌보시느라 한밤을 꼬박 지새우시기도 이 길이 조국통일에 더할나위없었다. 이제라도 태리, 전리를 더 가고싶다고 하시며 정력적인 헌신의 길을 이어가시던 위대한 장군님, 그이께 있어서 조국통일위업은 겨레의 무궁번영할 날과 관련되는 최대의 애국사업이었다.

이 땅에서 가이이 통일강국을 일떠세우고 조선민족을 더 높이 안아올려 세계가 부러워하게 하겠다는 확고부동한 신조를 지니시였기에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누구도 걸어보지 못한 험난한 가시밭길을 전두에서 헤쳐나가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데 시기, 때 단계마다 제시하신 과학적이며 현실적인 조국통일방정책, 그이의 지철을 모르는 정절과 불라는 애국적지는 반동세력들의 약한 방벽력중에서도 조국통일운동이 자기의 주체적성격을 굳건히 고수하며 승리적으로 전진하여올수 있게 한 원동력이였다.

우리 장군님의 탁월한 명도는 온 겨레의 환희와 격정을 불러일으킨 조국통일의 새시대를 안아왔다.

예시로 빛나는 안양, 봄날처럼 맑은 미소와 후더운 인정이, 거침없는 언변, 크나큰 도량과 포용력, 바다처럼 넓고 하늘처럼 차 트인 호방한 성격, 풍부한 유모아, 막히는 데 없는 다방면적이며 배반한 지식 등 위대한 장군님께서 지니신 위인적품성은 온 겨레를 대륙시키였다.

세인을 격동시킨 북남관계의 경이적인 사면들과 성과들을 목격하며 온 겨레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제시해주신 우리 민족끼리끼리의 정당성과 진리성, 그 무궁무진한 생활력을 심장깊이 절감하였다.

진정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는 오로지 조국의 통일과 민족의 번영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장그러 바치신 애국적의 화신, 민족의 영리한 태양이시다.

불라는 조국애와 민족애, 비범한 명도력과 숭고한 품도를 지니시고 조국통일운동을 헌명하게 이끌고이시던 위대한 장군님의 엄격한 무궁번영할 민족사와 더불어 길이 빛날것이다.

오늘 우리 민족의 조국통일위업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솔기차에 전진하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조국통일의 길에 가드놓이는 난관과 장애를 앞장에서 헤쳐나주시며 북남관계발전과 조선반도의 평화번영을 위한 역사적위업을 힘차게 다그쳐나가시였다.

오래동안 과격이 치해있던 북남관계에서 대전환이 일어나고 조국통일, 평화번영의 새 력사가 펼쳐지게 될것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확고한 의지와 더불어 필연한 것인데, 통이 큰 야망이 안아온 고귀한 결실이다. 그이께서 제시하시어 우리 인민은 그 어떤 시련과 난관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조국통일과 민족번영의 안전한 여로를 확신하고있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애국의 뜻과 의지를 만들어 위대한 장군님께서 서우신 조국통일의 대토를 따라 더욱 힘차게 전진해나갈것이며 그 길에서 통일강국의 새 아침을 만드시 맞이하고야말것이다.

본사기자 허영민

# 헌시 <김정일 찬가>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의 탄생 69돐에 즈음하여 수리아 라파 카야도 삼총업 및 무용선

두시회사 사장이 올린 선물이다.

헌시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당 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 각하의 헌명하고 인민을 사랑하는 사람은 고대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애독하며 우리의 심장속에 깊이 간직되어 우리 모두 함께 마다 경축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 주제 100(2011)년 4월 단타르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신회의 위원장이 올린 선물이다.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에 대한 존경의 마음을 담고 그리고 단타르크와 조선 두 나라 인민들사이의 오케고도 굳건한 친선술상상하는 의미에서 이 선물을 마련하였다고 한다.

위원장님 선물을 올리면서 사마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장기인것 처럼 심장을 형성한것은 두 나라 인민들사이의 진정한 친선술상상으로 느낀다는 의미를 담고

# 만민이 다 함없는 지성이 깃든 선물들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에 대한 존경의 마음과 우리 두 나라 인민들사이의 친선의 정을 담은 이 심장은 영민한것이다.

본사기자

하고있는 뜻깊은 날인 2월 16일 각하의 탄생기념일에 즈음하여 이 선물을 드리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위대한 명도자각하 각하께서는 인민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인민의 리과 나라의 존엄을 수호하시며 인민에게 행복을 생활을 마련해주고계시기에 각하의 사랑과 보선은 세계 자유애호인민들의 앞길을 밝혀주고있나니...》

선물에는 제국주의자들의 장권과 전황을 반대하는 세계적애호인민들의 투쟁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어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존경과 흠모의 정이 깃들여있다.

# 금속공예 <심장>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에 대한 존경의 마음과 우리 두 나라 인민들사이의 친선의 정을 담은 이 심장은 영민한것이다.

본사기자

# 최악을 저지른자들의 파렴치한 망동

남조선에서 보수《정권》시기 벌어진 사법행정법률적 폭로만으로는 움직이지 못하고있었다. 얼마전에도 《광명》사법행정법률적 폭로만으로는 움직이지 못하고있었다. 특히 통합진보당이 해산된 후에도 저들이 직접 나서서 남조선에서 저들의 의도적인 작각을 막아내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였다.

광명제당이 일제강점기정통파제정당과 관련된 제안을 할 당시 일본진보당법률과 비밀리에 거래를 하고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소송을 고의적으로 지연, 기각시키는 친일적행위를 한 사실도 폭로되였다.

광명제당이 일제강점기정통파제정당과 관련된 제안을 할 당시 일본진보당법률과 비밀리에 거래를 하고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소송을 고의적으로 지연, 기각시키는 친일적행위를 한 사실도 폭로되였다.

남조선에서는 지난 7월부터 80여명의 법관들에 대한 수사

# 민족교육발전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위대한 스승

제일조선학생소년예술단 단장이 열렬히 칭송

사회주의조국에 재류하고있는 리상현 제일조선학생소년예술단 단장이 17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사와 회견하였다.

그는 12월을 맞이할 때면 조국과 민족의 미래를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고귀한 한생이 어려와 가슴뜨거워짐을 금할수 없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숭고한 후대관을 그대로 체현하신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민족교육사업의 강위발전을 위해

# 우리 나라 도서기증식들

로씨야에서 진행

로씨야연방공산당 연례간담회 회 제 11차인 원동지역 김일성-김정일동지의연구협회 위무시고 조선을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으로 건설하인 사회주의사회주의, 위인주의의 위인이시이다. 조국과 혁명, 나라와 민족을 위 한 길에 모든것을 바치신 그이의 고귀한 한생은 세계정치사에 영원히 아로새겨질것이다.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조선 <인권문제> 논의도 파란

미국이 유엔안전보장이사회를 도용하여 2014년부터 12월초에 조선<인권문제>를 논의하던 모습이 율려에는 파란되었다.

미국은 조선<인권문제>를 논의하고 제안하였지만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여러 성원국들의 반대로 이 문제를 상정조차 시키지 못하였다. 아시아, 아프리카

# 경제발전 성과

케냐의 폼바사시에 있는 500KW의 발전소를 가진 태양발전력생산시설이 건설되어 12월 가동을 시작하였다. 시설이 건설됨으로써 비형가들의 리륙전원비상태를 절감하는데 필요 한 동력을 연료가 아니라 태양에너지로 보장할 수 있게 되었다.

결과 해마다 대기중에 방출되는 이산화탄소량이 약 1300t 줄어든다고 한다.

# 이산화탄소를 환원시키는 빛촉매 개발

지구 온난화를 극복하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이 세계적규모에서 활발히 진행되고있다.

최근 어느 한 나라의 연구진이 이산화탄소를 이산화탄소나 개미산으로 환원시키는 새로운 빛촉매를 개발하였다.

연구집단이 개발한 빛촉매는 귀금속이나 희유금속을 쓰지 않는것이 특징이라고 한다. 이 빛촉매는 2개의 착화합물을 이루어져있다. 둘을 기본으로 하는 착화합물이 빛을 흡수하고 양극을 기

본은정 생명을 수호, 애국애국의 자랑으로 받아안으며 이국땅에 활짝 피어던 민족교육의 화현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 제시시어 더욱 만발하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사회주의강국건설위업을 전두에서 이끄는 속에서서도 흥원의 교육정책과 세심조선학생들에게 하느같은 사랑을 베풀어주시고있다.

우리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높은 뜻을 받들어 동포지녀들을 흥원의 대, 애국의 태를 뜻으로 이어갈 참다운 역군들로 든든히 준비시키나갈것이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 존경하는 김정일대원수의 포박을 기증받은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정의 로씨야당 연례간담회 부위원회의 집행위원은 김정일동지는 조선인민을 자주성이 강한 인민으로, 조선을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으로 건설하인 사회주의사회주의, 위인주의의 위인이시이다. 조국과 혁명, 나라와 민족을 위 한 길에 모든것을 바치신 그이의 고귀한 한생은 세계정치사에 영원히 아로새겨질것이다.

【조선중앙통신】

# 에스파냐의 국가채무 최고기록

에스파냐에서 3, 4분기 국가채무가 그 전분기에 비해 1% 늘어나 1조 3000억 유로에 달하였다.

# 이스라엘군의 계속되는 탄압만행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한 탄압에 계속 열을 올리고있다.

14일 이스라엘군은 요르단강 서안지역과 가자지대에서 시위를 벌리던 팔레스타인인들을 향해 살탄과 고무탄, 최무가스용 마구 쏘아 1명을 죽이고 약 100명에 부상자를 입혔다.

# 주목되는 교내에서의 손전화기사용금지조치

교원은 《학생들은 수업시간이나 자습시간은 물론 길을 걸거나 밥을 먹을 때에도 그리고 잠을 잘 때에도 손전화기를 품에서 때려놓지 않는다. 그들은 더욱더 손전화기에 배려받는다. 기회만 있으면 물론 장난을 한다. 교원들이 미치 못하게 할수 없을 정도이다.》(《조선매일》) 손전화기장난은 학생들의 시력은 손상시키뿐 아니라 학습능률도 떨어뜨린다. 또한 이따금 시간을 헛되어 보게 한다. <2>이것이하였다.

학생들이 수업중에 손전화기장난을 하게 되면 수업내용에 집중하지 못하게 되고 함께 다른 학생들의 학업에도 방해가 된다. 이어 일부 학생들은 시험장에서도 손전화기를 가지고 부정행위를 한다.

자료에 의하면 인디아에서

# 범 죄 반 대 투쟁

중국 광둥성 심전시에서 지난 4월부터 현재까지 24개의 마약범죄단들을 적발하고 85명의 범죄嫌의자를 검거하였다. 또한 302명의 마약사용자를 구류하였으며 610kg의 각종 마약을 몰수하였다.

남양성 범상에서 지난 3월 말부터 현재까지 마약범죄 단의 상륙범단으로 240명의 사망자와 2만 5000명의 부상자가 있다고 밝혔다.

이런정황이 10일 시스단 발부치단중에서 1.5의 아편과 20여kg의 헤로인을 압수

# 어린이빈곤자 증가

영국에서 현재 어린이빈곤자가 수 5년전에 비해 50만 명 더 늘어나 410만 명에 달하였다. 4일 이 나라의 한 경제단체가 밝혔다.

집없는 사람수 증가

아일랜드에서 살림집 가격과 집세가 뛰어들어 집없는 주민들의 수가 늘어나고있다.

11월 29일 이 나라에서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10월말 현재 전국적으로 그러한 사람들의 수가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14.5% 증가되었다.

실업자 수

그리스에서 9월에 24살이던 청년들의 실업률이 36.6%에 달하였다. 또한 3.4분기 이 나라의 실업률은 약 87만 1760명에 달하였다.

최근 이 나라 전국통계국이 밝혔다.

【조선중앙통신】